

교회상담소 설치에 관한 목회자 인식연구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

박기영*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상담소 설치에 관한 목회자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교회상담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 19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통계기법은 빈도분석,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회의 위치'에 따른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교회 상담사역 현황'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모든 요인(교회 상담부서 유무, 교회상담소 설치 유무, 상담실 공간 여건, 평신도 상담사역 자원 유무, 성도의 상담요청 빈도에 관한 문항)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교회 상담사역 인식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의 인식에서는 '상담사역이 교회부흥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소 운영 계획이 없는 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교회상담소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목회자의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며 이밖에도 상담소 설치를 위한 여건의 확보와 평신도 전문상담자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목회상담, 교회상담소, 목회자 인식,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평신도상담자

• 논문 투고일: 2016년 4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16년 5월 5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12일

* 성결대학교

I. 여는 글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 있어서 정체하거나 혹은 감소하고 있다. 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종교인 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숫자는 1984년 17%에서 19%(1989년), 20%(1997년), 21%(2004년) 증가하다가 2014년 현재도 21%로 정체하고 있다.¹⁾ 반면에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대비 1995년에는 19.7%(876만명)에서 2005년에는 18.32%(861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 개척이나 목회자 지망생들의 감소에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세기 남짓한 짧은 역사 만에 해외 선교사 배출 2위라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하고도 한국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³⁾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의 구조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대신 ‘기독교왕국’을 확장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위기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위안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도 성도의 실존적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서 그 대안적 목회방법론으로 목회상담을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⁵⁾ 일부이기는

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제5차비교조사서』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19.

2) 문화체육관광부 편,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14.

3) 이병주, 『한국교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희생계획안: 평신도의 발견』 (서울: 아포리아, 2015), 13.

4) 양희승, “다시, 프로테스탄트 출간 기념좌담회”, (2012.11.20.), 2015년 3월 18일 접속, 해당사이트: <http://blog.daum.net/leekynm7/125>.

5) 이범성, “한국개신교회 에큐메니칼 선교방향과 그 실천신학적 근거들”,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6호(2010): 189-217.

하지만 목회상담적인 접근을 통해 상처받은 성도들의 실존적인 문제와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상담은 새로운 신학적 흐름이 되고 있다.⁶⁾ 이러한 시기에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목회상담적 접근이나 상담목회 사역은 시대적 요청이 아닐 수 없다.⁷⁾ Howard J. Clinebell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⁸⁾

나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어느 주일날의 생생한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강단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의 빠져 있는 젊은 미망인,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부부, 중독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알콜 중독자, 결혼생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갈등하는 부부, 여자 친구를 임신시킨 고등학생,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남자, 직장에서 강제 해고되어 힘들어 하고 있는 남자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Clinebell이 인식했던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는 교회 안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목회상담적으로 돌보는 것은 한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6) 이해리, “목회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7호(2011): 95-148.

7) 심수명, “교회성장을 돕는 상담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밀교회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2007): 199-226.

8)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 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79.

교회에서의 상담적 접근을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목회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한 생명을 돌보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므로 목회자들이 결코 소홀히 해서 는 안 될 사역이다.⁹⁾ 물론 목회상담은 성경적 상담이 되어야하며, 성경적 상담은 개혁주의 신학에 근본을 두고 있다.¹⁰⁾ 일부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에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정신건강의 문제로 일반 상담소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회상담적 돌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연구자가 운영하는 일반 유료상담센터에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한 내담자의 종교를 분석해 보면 개신교인의 숫자가 전체 내담자의 약 40%에 이른다. 이러한 숫자는 한국 개신교인의 평균 숫자를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목회상담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문제이다. 목회자가 성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성도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성도 자신의 문제이다. 성도가 담임목회자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상담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목회상담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목회적 대안으로서 상담사역에 대한 제안이나 상담목회에 대한 고찰, 교회상담

9) 오성춘, “새시대의 한국교회와 목회상담의 과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장신논단」 제18집(2002): 401-23.

10) 하희승, “목회상담을 통한 청소년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95-322.

소 운영 실태, 기독교 상담전공생이나 예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상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연구조사가 진행되어 왔다.¹¹⁾ 그러나 단일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상담소 설치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조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속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목회상담의 일환으로써 교회상담소 설치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교회상담소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문헌검토와 실증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목회상담의 이해와 대표적인 교회상담소 운영 및 현황, 그리고 평신도상담자 양성의 필요성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단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포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교회 상담사역 현황과 연관된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상담사역의 인식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11) 강태훈, “교회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 연구”(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23-28; 이소영, “기독교상담소 실태조사를 통한 교회 내 상담소 발전방안 및 방향성 제시”(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2010), 29-60; 임명복, “한국교회 안의 기독교상담자에 의한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5), 45-58; 홍인숙, “한국교회 상담목회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신학대학원, 2003), 57-68; 이해리, “목회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95-148.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목회상담의 이해와 선행연구

(1) 목회상담의 이해

목회상담은 20세기에 와서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약 2,000년이라는 장구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행해져 온 목회적 돌봄이 20세기에 와서 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 풍성해지고 더 전문화된 목회사역이다.¹²⁾ 목회상담은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이라는 큰 틀 속에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³⁾ 하나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이며 보편적인 상담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목회상담으로써 이는 신학적 전문성과 심리학의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들이 수행하는 전문사역이다.

목회상담은 목회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영혼을 맡아 보살피는 목회상담적 책임이 있다.¹⁴⁾ Clinebell은 목회상담은 목회자가 개인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갖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⁵⁾ Seward Hiltner는 목회상담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인의 사귄데로 인도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이전에 의심과 불안 대신에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12) 안석모 · 권수영 · 김필진 · 박노권 · 박민수 · 신명숙 · 이관직 · 이정기 공저, 『목회 이론입문』 (서울: 학지사, 2009), 20.

13) 이관직,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5-6.

14) 김영란, “예수님의 상담에 근거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08), 8.

15)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47.

평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¹⁶⁾ 목회상담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 Jay E. Adams는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상담이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¹⁷⁾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목회상담이란 “목회자가 문제를 가진 성도를 대상으로 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그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목회돌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자는 교회 안에서 목회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목회상담은 목회돌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목회상담적 노력을 해야 한다.¹⁸⁾ 둘째, 목회상담은 예수님이 심령이 상한 자를 돌보시는 모본을 보이신 사역이기 때문이다. 셋째, 목회상담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Clinebell은 목회상담이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인 케리그마(κήρυγμα: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와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수직적 차원에서 친교를 수립하는 일), 그리고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사랑의 봉사로 신앙을 수행하는 일)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¹⁹⁾ 넷째, 목회상담은 성도를 전인적인 성장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목회상담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기회

16)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49), 27.

17)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8), 371.

18) 김미경,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1호(2015): 75-101.

19) Howard J. Clinebell, *Growth Counseling*, 이종현 역, 『성장상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7.

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교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노인대학이나 방과 후 학교, 취미동아리나 각종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운영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상담소를 찾는 성도들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회자 자신이 직접 상담해 줄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목회자가 성도의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상담소 설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강태훈은 2007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100명의 예비 목회자를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했다.²⁰⁾ 담임목회를 할 경우 교회상담소를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연구는 교회상담소 설치에 대한 예비목회자의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상담소설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후 이해리는 2011년에 목회자와 상담자 및 상담전공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회상담소 현황, 목회상담협회의 역할과 기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하였다.²¹⁾ 전체 응답자의 24.7%가 교회에 상담소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다수인

20) 강태훈, “교회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 연구”, 23-28.

21) 이해리, “목회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95-148.

72.4%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논문의 대상자는 상담자(144명)와 상담전공생(414명) 및 목회자(185명)로 구성되어 각자의 견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교회상담소 설치에 대해서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 교회상담소 설치 운영 현황 및 선행연구

(1) 교회상담소 설치 운영현황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수시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심방을 요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받은 성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교회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상담부서를 설립하거나 교회상담소를 설치하는 운동이 서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 내에서 현대적 목회상담운동이 활발히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²²⁾ 교회상담소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교회(예장 합동)은 1991년 옥한흠 담임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치유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에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²³⁾ 현재 인터치상담사 역부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퍼바이저 3명과 10명의 전문상담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상담사의 급여 및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교회가 지원하고 있다. 대면상담은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에 한해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²⁴⁾ 이 교회상담소의 특징은 타 교회 교인들을 상담해 주면서 발생하게 되는 교인 이동의 문제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

22) 안석모 외 공저, 『목회이론입문』, 47.

23) 강태훈, “교회 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연구”, 29.

24) 사랑의 교회, <http://counseling.sarang.org>.

여, 타 교인을 대상으로는 상담하지 않는다.

새중앙교회(예장 대신)은 새중앙상담센터를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내에서 손꼽힐만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²⁵⁾ 현재 상담센터는 이사장과 소장, 연구원장이 각각 1명씩 있으며, 기획행정팀, 상담팀, 교육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상담사 31명, 놀이치료사 6명, 미술치료사 5명, 임상심리사 1명, 언어치료사 5명, 인지치료사 3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²⁶⁾ 상담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심리상담연구원을 2년 4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력하고 있는 상담분야는 아동상담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인과 비종교인 구분 없이 받고 있다.

안산동산교회(예장 합동)은 담임목사가 상담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처음에는 ‘가정사역학교’로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 상담소를 개소하고 현재는 ‘동산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장을 비롯하여 4명의 전문상담사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며,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인턴상담자 및 파트타임 상담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²⁷⁾ 자원봉사자들은 1년 4학기제의 ‘가정사역학교’를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상담교육이 진행된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심리검사는 유료이다. 본 상담소는 가정행복학교, 어머니학교, 행복한 부부세미나, 결혼준비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²⁸⁾ 이밖에도 평신도를 대상으로 임상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위의 세 교회의 상담소 운영이 주는 공통적 메시지가 있다. 첫째,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일찍부터 교

25) 강태훈, “교회 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연구”, 32.

26) 새중앙상담센터, <http://happyline.sja.or.kr>.

27) 강태훈, “교회 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연구”, 36.

28) 동산상담소, http://mentor.d21.org/sub01_01.htm.

회 내에 상담소를 설치한 점이다. 둘째, 교회상담소에 유급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으며, 평신도상담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신도를 목회상담을 위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소속 교인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교회상담소를 개방하여 영혼구원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전도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목회상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도의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2) 선행연구

이소영은 2009년도에 교회상담소와 기독교상담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²⁹⁾ 그는 논문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의 특징을 분석했다. 사이버상담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랑의 교회였으며, 전화상담은 영락교회로서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3교대로 봉사하고 있었고,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등은 면접상담이 활발하고 이루고 지고 있었다. 교회상담소의 70%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었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전도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대상교회 목회자들의 상담소 운영에 대한 목회철학이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소영은 교회상담소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개 교회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반면 이해리³⁰⁾는 목회자와 상담자 및 상담전공생을 대상으로 교회상담소 운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특정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상담소 설치 현황과 그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연구논문은 아직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교회상담소 설치에 대한 목회자의 인

29) 이소영, “기독교 상담소 실태 조사를 통한 교회 내 상담소 발전 방안 및 방향성 제시”, 60-62.

30) 이해리, “목회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95-148.

식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목회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평신도상담자 양성 필요성과 선행연구

(1) 평신도상담자 양성 필요성

목회자는 설교준비를 비롯해서 목회사역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심방 및 자기개발 등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함을 느낀다. 또한 상담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상담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목회자가 평신도상담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³¹⁾ 교회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에 목회자가 평신도상담자 양성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³²⁾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우선적으로 평신도상담자를 목회의 조력자이자 동역자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상담자’(lay counselor)는 신학용어로서 일반상담학에서 말하는 ‘비전문상담자(non-professional counselor)’ 또는 ‘동료상담자(peer counselor)’에 해당된다.³³⁾ 즉 평신도상담자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지는 않아서 비전문적이지만, 개인의 인격적 특성 때문에 많은 동료들에게 도움이 주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Gary R. Collins는 ‘상담자(counselor)’라는 용어를 다소 전문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돕는 자(helpe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평신도상담자’를 ‘평신도 도우미(people helper)’라고

31) 전요섭,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상담자 양성 및 활용”,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10-39.

32)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1), 66.

33) Joseph Moore, *Helping Skills for Non-professional Counselor*, 전요섭 역, 『비전문상담자를 위한 상담학』(서울: 은혜출판사, 1995), 29.

기술하기도 했으며, ‘준 전문적(paraprofess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³⁴⁾ 이와 같이 평신도상담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한계가 모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어 하는 성도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이 의욕이 앞서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시도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목회자는 평신도상담자 양성 교육을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³⁵⁾

교회 안에서 평신도상담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³⁶⁾ 첫째, 평신도상담자는 목회자와는 달리 동료 성도들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둘째, 평신도상담자는 목회자에 비해서 상담 시간을 내기가 쉬우며 언제든지 성도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³⁷⁾ 셋째, 평신도상담자는 동료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보다도 그들의 상황을 더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 넷째, 평신도상담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평신도상담사역은 목회상담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회복사역을 통해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⁸⁾ 더 나아가 평신도 상담사역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의 목회상담사역을 분담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따라서 평신도상담자가 목회자의 상담사역에 동역자가 된다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상담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34)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9.

35) 전요섭,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상담자 양성 및 활용”, 10-39.

36)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2008), 190.

37) Martin Bobgan & Deidre Bobgan, *How to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125.

38) 최영순 · 이석호, 『평신도 상담사역을 통한 건강한 교회세우기』 (고양: 지식공감, 2013), 62.

39) Adams, 『목회상담학』, 435.

며,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평신도상담사역이 목회상담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 유지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2) 선행연구

전요섭은 그의 논문에서 평신도상담은 목회자 스스로가 신자들에게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¹⁾ 아울러 이는 목회자의 상담적 마인드와 관심이 있을 경우에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평신도상담자를 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효과나 활용에 있어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안경승은 비록 평신도상담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상담 전문가들의 연구와 동의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⁴²⁾ 이는 평신도상담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 공동체 내에서 상담 자체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본래의 사명을 중의 하나인 성도 서로 간에 돌보고 이를 통해 상담문화를 수용하는 곳으로 변해야만 할 것을 주장했다. 교회가 효과적인 평신도상담 사역의 장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 치유와 말씀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orchin에 따르면 비전문상담자(평신도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은 전문상담자를 양성하는 제 1단계로 보았다.⁴³⁾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교회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평신도상담자를 받

40) 최영순·이석호, 『평신도 상담사역을 통한 건강한 교회세우기』, 66.

41) 전요섭,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상담자 양성 및 활용”, 10-39.

42) 안경승,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212-238.

43) Sheldon J. Korchin,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Basic, 1976), 519-21.

굴하여, 교인들을 돌보며, 더 나아가 이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상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회상담의 동역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단 목회자들로서 서울 및 수도권과 중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며, 설문지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2016년 1월 12일부터 2월 29일까지 8개 지방회 정기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자료를 수집했다. 총 320부를 배포하여 23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설문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39부를 제외하고 19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먼저 연구자가 교회 내 상담소 설치에 관련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하여 기독교상담을 전공한 두 명의 교수로부터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 받은 뒤에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1>과 같다.

구 분	내 용	문항수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목회자의 성별, 나이, 직책, 교회위치, 교회 평균 출석인원 등	5
교회상담소 설치 현황	교회 상담부서 유무, 교회상담소 설치 유무, 상담실 공간 여건, 평신도 상담사역 자원 유무, 성도의 상담요청 빈도에 관한 문항	5
상담소 설치에 대한 목회자 인식	상담소 설치 필요성, 상담사역과 부흥과의 연관성, 상담소 설치 예정 이유, 상담소 설치 계획이 없는 이유, 상담요청시 목회자 반응,	7
계		17문항

3) 자료분석방법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회 내 상담사역 현황, 교회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회 상담사역 현황, 교회 상담사역에 대한 인식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본 설문내용은 리커트 척도가 아니고, 명목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통계적으로 문항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93.7%, '여자'가 6.3%이었으며, 연령은 '41-50세'와 '51-60세'가 각각 31.9%, '61세 이상'이 25.1%, '40세 이하'가 11.0% 순이었다. 직분은 '담임목사'가 86.4%로 대부분이었고, '부교역자'는 8.9%, '원로목사'는 2.1%, '기타'는 2.6%이었다. 교회의 위치는 '서울'이 41.4%, '수도권'이 49.2%, '중소도시'가 9.4%이었고, 출석 교인의 수는 '100명 이하'가 72.8%, '101-300명'이 15.7%, '301-500명'이 5.2%, '501명 이상'이 6.3%이었다.

〈표 1〉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179	93.7
	여	12	6.3
연령	40세 이하	21	11.0
	41-50세	61	31.9
	51-60세	61	31.9
	61세 이상	48	25.1
직분	담임목사	165	86.4
	부교역자	17	8.9
	원로목사	4	2.1
	기타	5	2.6
교회위치	서울	79	41.4
	수도권	94	49.2
	중소도시	18	9.4
출석 교인 수	100명 이하	139	72.8
	101-300명	30	15.7
	301-500명	10	5.2
	501명 이상	12	6.3
전체		191	100.0

2) 교회 내 상담사역 현황

교회 상담사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교회 조직에 상담관련 부서유무는 ‘없다’가 76.4%이었고, ‘있다’는 12.0%, ‘예정이다’는 10.5%, ‘예정에 없다’는 1.0%이었으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유무는 ‘없다’ 80.6%, ‘예정이다’ 12.6%, ‘있다’ 4.7%, ‘예정에 없다’ 2.1% 순이었다. 교회에 상담실을 위한 공간에 대해 ‘충분하다’는 20.9%, ‘조금 있다’는 39.8%이었으며, ‘미흡하다’는 25.7%, ‘전혀 없다’는 13.6%이었다. 평신도 상담사로 사역할 자원은 ‘많이 있다’ 3.1%, ‘조금 있다’ 46.6%로 자원이 있다는 전체의 49.7%이었고, ‘부족하다’는 33.0%, ‘전혀 없다’는 17.3%이었다.

〈표 2〉 교회 내 상담사역 현황

구분		빈도(N)	백분율(%)
상담부서 유무	있다	23	12.0
	없다	146	76.4
	예정이다	20	10.5
	예정에 없다	2	1.0
교회 운영 상담소 유무	있다	9	4.7
	없다	154	80.6
	예정이다	24	12.6
	예정에 없다	4	2.1
상담실 공간	충분하다	40	20.9
	조금 있다	76	39.8
	미흡하다	49	25.7
	전혀 없다	26	13.6
상담사역 자원	많이 있다	6	3.1
	조금 있다	89	46.6
	부족하다	63	33.0
	전혀 없다	33	17.3
상담요청 빈도	자주 있다	23	12.0
	가끔 있다	134	70.2
	거의 없다	31	16.2
	전혀 없다	3	1.6
전체		191	100.0

3)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3.12로 ‘약간 필요하다’ 51.8%, ‘매우 필요하다’ 30.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2%,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순이었다.

〈표 3〉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

구분		빈도(N)	백분율(%)
교회상담소 설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1
	별로 필요하지 않다	29	15,2
	약간 필요하다	99	51,8
	매우 필요하다	59	30,9
	평균±표준편차	3,12±,73	
전체		191	100,0

4) 연구문제 검증

연구문제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회위치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목회자의 성별, 연령, 직분, 출석 교인 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교회 위치는 서울(M=3.29), 중소도시(M=3.06), 수도권(M=2.98) 순으로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20, p<.05).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	179	3,11	,73	-,251	,802	-
	여	12	3,17	,72			
연령	40세 이하	21	2,90	,77	1,105	,348	-
	41-50세	61	3,07	,75			
	51-60세	61	3,15	,75			
	61세 이상	48	3,23	,66			
직분	담임목사	165	3,10	,74	,178	,837	-
	부교역자	17	3,18	,81			
	기타	9	3,22	,44			

직분	담임목사	165	3.10	.74	.178	.837	-
	부교역자	17	3.18	.81			
	기타	9	3.22	.44			
교회 위치	서울	79	3.29	.64	4.120*	.018	-
	수도권	94	2.98	.79			
	중소도시	18	3.06	.64			
출석 교인수	100명 이하	139	3.05	.72	2.040	.133	-
	101-300명	30	3.30	.75			
	301명 이상	22	3.27	.77			

* p<.05

연구문제2. 상담사역 현황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교회 내 상담사역 현황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담관련 부서유무와 교회 운영 상담소유무, 교회 내 상담실 공간, 상담사 사역 자원, 성도들의 상담요청 빈도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상담관련 부서유무는 예정이다(M=3.50), 있다(M=3.35), 없다(M=3.03) 순으로 상담관련 부서가 예정인 목회자의 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F=5.239, p<.01), 교회 운영 상담소유무는 있다(M=3.67), 예정이다(M=3.42), 없다(M=3.04) 순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는 목회자의 경우 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762, p<.01). 교회 내 상담실 공간은 충분하다(M=3.28), 미흡하다(M=3.20), 조금 있다(M=3.09), 전혀 없다(M=2.77) 순으로 교회 내 상담실 공간이 충분한 목회자의 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며(F=2.934, p<.05), 상담사 사역 자원은 있다(M=3.23), 부족하다(M=3.08), 전혀없다(M=2.85) 순으로 평신도 상담사로 사역할 자원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가 상담소 설치 필요성의 수치가 가장 높았고(F=3.573, p<.05), 성도들의 상담요청은 자주 있다(M=3.78), 가끔 있다(M=3.07), 없다(M=2.82) 순

으로 성도들의 상담요청이 자주 있는 목회자의 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F=14.251, p<.001$).

〈표 5〉 상담사역 현황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상담부서 유무	있다 (a)	23	3.35	.71	5.239**	.006	c,a>a,b
	없다 (b)	148	3.03	.74			
	예정이다 (c)	20	3.50	.51			
교회 운영 상담소 유무	있다 (a)	9	3.67	.50	5.762**	.004	a,c>c,b
	없다 (b)	158	3.04	.73			
	예정이다 (c)	24	3.42	.65			
상담실 공간	충분하다 (a)	40	3.28	.64	2.934*	.035	a,c,b>c,b,d
	조금 있다 (b)	76	3.09	.72			
	미흡하다 (c)	49	3.20	.64			
	전혀 없다 (d)	26	2.77	.95			
상담사역 자원	있다 (a)	95	3.23	.71	3.573*	.030	a,b>b,c
	부족하다 (b)	63	3.08	.70			
	전혀없다 (c)	33	2.85	.80			
상담 요청 빈도	자주 있다 (a)	23	3.78	.42	14.251***	.000	a>b,c
	가끔 있다 (b)	134	3.07	.70			
	없다 (c)	34	2.82	.76			

* $p<.05$, ** $p<.01$, *** $p<.001$

연구문제3. 상담사역 인식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교회 상담사역 인식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담사역이 교회부흥에 미치는 영향과 교회에서 상담소 운영 계획이 없는 이유, 상담소 설치 유형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기타 요인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담사역이 교회부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도움이 된다($M=3.68$), 약간 도움이 된다($M=3.01$) 순으로 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높았고($F=54.225, p<.001$), 교회에서 상담소 운영 계획이 없는 이유는 목회 사역이 과다하므로($M=3.33$), 교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M=3.13$)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낌($M=2.50$) 순으로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목회자의 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낮았다($F=3.944, p<.01$). 상담소 설치 유형은 교회 내 상담소 설치($M=3.25$), 교회 밖 상담소 설치($M=3.16$),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운영($M=2.89$) 순으로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15, p<.01$).

〈표 6〉 상담사역 인식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교회 부흥에 미치는 영향	매우 도움 된다. (a)	57	3.68	.54	54.225***	.000	a)b)c
	약간 도움 된다. (b)	109	3.01	.57			
	도움이 안 된다 (c)	25	2.28	.74			
상담소를 운영 계획 이유	목회 상담의 일환	79	3.20	.63	2.585	.055	-
	심리 정서 치유를 위해	90	3.07	.78			
	교회 양적 성장 도움	10	3.40	.70			
	시대적 흐름이므로	12	2.67	.89			
상담소 설치 계획 없는 이유	목회 사역의 과다 (a)	36	3.33	.68	3.944**	.009	a,b,c),c,d
	교회 여건 안 됨 (b)	127	3.13	.70			
	상담후 성도 떠날까 봐 (c)	18	2.94	.87			
	상담 필요성 못 느낌 (d)	10	2.50	.71			
상담을 요청할 경우의 반응	영적으로 권면	97	3.06	.64	.659	.579	-
	직접 심리상담 수행	76	3.17	.81			
	사모(부교역자)에 의뢰	9	3.33	.50			
	인근 상담소에 의뢰	9	3.00	1.12			
상담 사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목회자의 긍정적 인식	99	3.18	.75	2.001	.115	-
	성도의 참여 의식	36	2.92	.69			
	전문 상담 인력 양성	47	3.19	.65			
	기 타	9	2.78	.97			
상담소 설치 유형	교회 내 상담소 설치	104	3.25	.65	4.115**	.007	-
	교회 밖 상담소 설치	31	3.16	.64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	18	2.89	.83			
	지역 상담소와 협력	38	2.82	.87			

** p<.01, *** p<.001

III. 닫는 글

1. 논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회상담소 설치에 관한 목회자의 인식에 대해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에서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4>에 의하면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교회 위치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서울에 위치한 교회의 목회자들(M=3.29)이 중소도시(M=3.06)나 수도권(M=2.98)에 위치한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보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더 느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교회의 목회자가 타 지역의 목회자보다 목회상담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타 지역 교회 성도들보다 정신건강에 있어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의 82.7% ('매우 필요하다' 30.9%, '약간 필요하다' 51.8%)가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교회에 상담관련 부서가 있는 교회(12%)와 앞으로 상담부서를 예정하는 교회(10.5%)의 합계는 22.5%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교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4.7%)와 앞으로 교회상담소를 설치 예정인 교회(12.6%)의 목회자들의 합계가 17.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수치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상담소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이유는 <표 6>에 나와 있듯이 '목회사역의 과다' (M=3.33) > '교회 여건이 안 됨' (M=3.13)

> ‘상담 후 성도가 떠날까봐’ (M=2.94) >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낌’ (M=2.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목회자가 교회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움’ (M=3.40) > ‘목회 상담의 일환’ (M=3.20) > ‘성도들의 심리 정서 치유’ (M=3.07) > ‘시대적 흐름’ (M=2.67)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강태훈이 감리교 예비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상담소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도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베풀기 위해서’ 66%, ‘성경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20%, ‘교회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9%, ‘불신자들의 교회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의 순으로 응답한 결과와 대비가 된다.⁴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상담소 설치의 중요한 이유를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고 응답한 반면, 감리교 예비 목회자들은 ‘목회적 돌봄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평소에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직 목회자와 장차 이상적인 목회를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의 현실감의 차이이거나 목회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연구문제2에서 교회 상담사역 현황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5>에 의하면 교회 상담사역 현황의 모든 요인(상담부서 유무, 교회상담소 유무, 상담소 공간 여부, 평신도 상담사역 자원 여부, 성도의 상담 요청 빈도 등)에 따른 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교회에 상담부서가 있거나, 교회상담소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보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 내 상담실 공간이 있거나 상담사 사역 자원이 있거나 성도들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은 빈도가 많은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보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다. 실제

44) 강태훈, “교회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 연구”, 26.

적으로 교회상담소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상담소를 위한 공간적 여유나 평신도상담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교회임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교회상담소를 설치할 공간적 혹은 인적 여건이 되지 않거나, 성도로부터 상담 요청을 가끔 받는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상담소를 설치할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3에서 교회 상담사역의 인식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6>에 의하면 교회 상담사역의 인식 요인 중에 상담사역이 교회부흥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소 운영계획이 없는 이유, 상담소 설치 유형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 필요성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교회 상담사역이 교회 부흥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목회자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보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회상담소가 실제로 교회의 양적 부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목회자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상담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목회자의 긍정적인 인식' ($M=3.18$)과 '전문상담인력' ($M=3.1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강태훈이 교회상담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함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의 상담 인식부족' 26%, '전문상담인력의 부족' 25%, '목회자의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부족' 17% 순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⁴⁵⁾ 이는 교회상담소 설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교회상담소 운영에 대한 목회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전문상담인력 양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교회상담소 설치 유형에 관한 목회자의 인식에서는 '교회 밖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 ($M=3.16$)보다는 '교회 내에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 ($M=3.2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의 교회 규모(주일날 출석인원 100명 이하)가 72.8%임을 감

45) 강태훈, "교회내 상담소의 실태 조사와 방향 연구", 27.

안해 볼 때, 출석 교인이 적은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회 내 상담소 설치가 교회 밖 상담소 설치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에 교회 밖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응답한 목회자는 교회의 재정적 여건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 밖 상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좀 더 소통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소 설치 유형에 대한 답변에서 교단연합회 차원에서 운영(M=2.89)하거나, 지역 상담소와 협력(M=2.82)하겠다고 하는 목회자도 일부 있었는데, 이는 교회 형편상 자체적으로 교회상담소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려는 목회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요인가운데, 교회의 위치에 따른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타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보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 상담사역 현황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서는 상담부서가 있거나, 상담소를 설치할 여건(공간, 인적 자원)이 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지 않은 목회자보다 교회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더 느꼈다. 셋째, 교회 상담사역의 인식에 따른 교회상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교회상담소 설치가 교회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보다 교회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반면에 교회상담소 설치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업무의 과다’와 ‘상담소 운영을 위한 여건’(공간, 상담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목회상담의 일환으로써 교회상담소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상담소 설치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목회자의 인식임을 감안해 볼 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에 교회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교단적으로는 교회상담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교회를 모델로 선정하여, 교회상담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회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회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상담소에서 근무할 평신도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나 한국목회상담협회 같은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자 양성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교회상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교회의 경우에는 지방회나 노회와 같은 연합회나 지역별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양상담코칭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산에 있는 12개 교회가 연합하여 2008년도에 세운 상담소로써 인근 지역주민과 성도들에게 기독교상담문화의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다.⁴⁶⁾ 다섯째, 연합회 차원의 상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 교회별로 인근 기독교전문상담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목회자라면 정기적으로 상담적 설교를 하거나 정신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성도들을 심리 정서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선정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일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표집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회상담소 설치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써 교회상담소 설치 및 활용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운영

46) 이소영, “기독교 상담소 실태 조사를 통한 교회 내 상담소 발전 방안 및 방향성 제시”, 78.

되고 있는 교회상담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회상담소가 교회 부흥 및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회상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태훈. “교회내 상담소의 실태조사와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 김미경.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대상관계이론 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1호(2015): 75-101.
- 김영란. “예수님의 상담에 근거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08.
- 문화체육관광부 편.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심수명.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상담목회』.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2008.
- 심수명. “교회성장을 돕는 상담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밀교회를 중심으로”. 한국복음 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2007): 199-226.
- 안석모 · 권수영 · 김필진 · 박노권 · 박민수 · 신명숙 · 이관직 · 이정기 공저. 『목회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2009.
- 안경승. “평신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212-38.
-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출간 기념좌담회”. (2012.11.20.).
<http://blog.daum.net/leekynm7/125>.
- 오성춘. “새시대의 한국교회와 목회상담의 과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장신 논단」 제18집(2002): 401-423.
- 이관직.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 이병주. 『한국교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 평신도의 발견』. 서울: 아포리아, 2015.
- 이범성. “한국개신교회 에큐메니칼 선교방향과 그 실천신학적 근거들”.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6호(2010): 189-217.
- 이소영. “기독교상담소 실태조사를 통한 교회 내 상담소 발전방안 및 방향성 제시”. 석사학 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10.
- 이해리. “목회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7호 (2011): 95-148.
- 임명복. “한국교회 안의 기독교상담자에 의한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석사

- 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5.
- 전요섭.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상담자 양성 및 활용”.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2004): 10-39.
- 최영순 · 이석호. 『평신도 상담사역을 통한 건강한 교회세우기』. 고양: 지식공감, 2013.
- 하희승. “목회상담을 통한 청소년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95-322.
- 홍인숙. “한국교회 상담목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8.
- Bobgan, Martin & Deidre Bobgan. *How to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 Clinebell, Howard J. *Growth Counseling*. 이종현 역. 『성장상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Clinebell, Howard J.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Collins, Gary R.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Hiltner, Seward.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49.
- Korchin, Sheldon J.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Basic, 1976.
- Moore, Joseph. *Helping Skills for Non-professional Counselor*. 전요섭 역. 『비전문상담 자를 위한 상담학』. 서울: 은혜출판사, 1995.
-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Grand Rapids, MI. : Zondervan, 1991.
- 동산상담소 홈페이지(http://mentor.d21.org/sub01_01.htm)
-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http://counseling.sarang.org>)
- 새중앙상담센터 홈페이지(<http://happyline.sja.or.kr>)

【 Abstract 】

The Pastors' Cognition Study about Installation of
Church Counselling Office.
- Aiming Pastors of Jesus Korea Sungkyul Church -

Ki Young Park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stors' cognition about the installation of a church counselling office. This survey research was performed and analyzed on 191 pastors of the Jesus Korea Sungkyul Church for this purpose.

The result confirmed by the study is as below. First, in the difference of the necessity of the installation of the counselling office due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 difference of the necessity of the installation of the church counselling office due to a 'church location' has meaningful difference, but there is no difference due to other factors. Second, in the difference of a installation of the church counselling office due to 'the current state of the church counselling ministry',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for all items. Third, in the difference of the necessity of the installation of the counselling office due to the recognition on the church counselling ministry, both 'the influence of the counselling ministry for the church revival' and 'the reason that is no plan for the counselling office' have meaningful difference.

As a conclusion, to activate the pastoral counselling, we could say it is needed the positive cognition of pastors about the installation of the church counselling office, and to train professional lay counsellors first of all.

Key words: pastoral counselling, church counselling office, cognition of pastor, Jesus Korea Sungkyul Church, lay counselor